



북한 기도회

2023년 12월





기도제목 1.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이 3번째 시도 만에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9.19 남북군사합의의 일부 효력을 정지시키고 군사분계선 일대 대북 정찰·감시 활동을 재개하기로 하는 등 강경한 대응을 예고하였고, 북한 역시 9.19 합의의 사실상의 파기를 선언하였습니다. 군사적 긴장과 국제적 대결구도가 한반도를 사이에 두고 펼쳐지는 가운데 평화를 위한 우리의 기도가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각국의 의사결정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신냉전의 대결구도가 악화되고 군사적 긴장이 완화될 수 있도록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기도제목 2. 북한 선교를 위한 세계 교회의 참여와 협력을 위해 기도합니다.

급변하는 국제 환경 속에서 한인 선교사들의 체류와 활동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그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제는 북한 선교의 사명을 한국 교회 뿐만이 아니라 세계 곳곳의 현지 교회들도 함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러시아나 중국, 그 외 북한과 우호적 관계를 맺고 있는 세계 여러 나라에 있는 현지인 교회와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들을 주목해야 합니다. 비록 이러한 교회들의 규모나 역량은 제한적일 수 있지만, 대부분 박해를 이겨내고 생존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현지에 파견된 북한 사람과의 접촉도 한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유롭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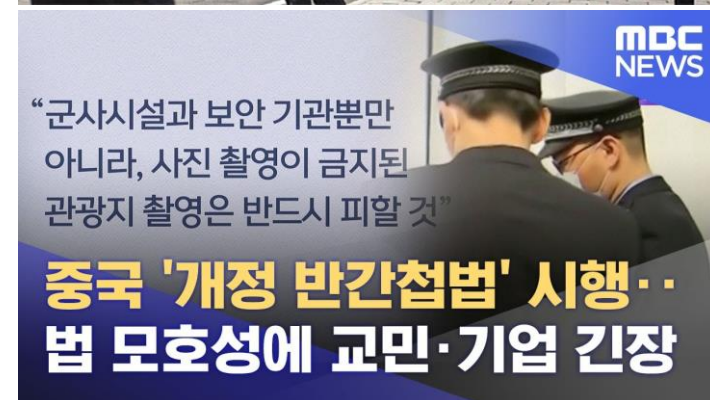
세계 교회가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북한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한국교회가 세계 교회를 북한 선교로 동원하고 언어나 문화이해 등의 측면에서 돕는 가운데 아름다운 선교적 협력을 이뤄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기도제목 3. 해외 북한선교현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조중 국경지역에서는 내년부터 관광이나 인적 왕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는 소식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를 대비한 선교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동안 코로나 대유행과 중국의 정책으로 인해 많은 선교사님들이 현장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중국의 반간첩법 개정안 시행 및 북러관계 밀착으로 인한 러시아 내 탈북자에 대한 처우 악화 등으로 선교 현장의 부담이 더욱 커진 상황입니다.

북한 선교를 위해 성령 충만하고 준비된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선교사역이 안전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기도제목 4. 북한의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은 자력갱생과 버티기 기조 속에서 국내의 자원을 최대한 동원하고 활용하기 위한 경제 정책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북한 주민들의 경제 활동의 자유를 제약하고 국가의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이는 권력 엘리트와 그에 연계된 계층들은 부유하게 하는 반면, 서민경제는 더욱 위축시켜 사회 전반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됩니다.

북한이 자신의 체제 모순을 인정하고 진정한 이민주의의 정책을 펼치도록 변화되길 기도합니다. 또한 주민들의 자유와 인권이 증진되고 사회적 불평등이 완화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기도제목 5. 소외 계층 북한 서민들의 겨울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의 겨울 추위는 남한에 비해 심하며 특히 북부 산악지역 등 소외지역으로 갈수록 더욱 혹독합니다. 하지만 북한 당국은 충분한 에너지를 주민들에게 공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태양광 패널 사용 등 여러 자구책을 강구하며 에너지난에 대응하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에너지 빈부격차가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점점 추워지는 날씨 속에서 북한의 서민들이 겨울을 조금이라도 더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겨울 추위에 어려움을 겪는 동포들을 돕기 위한 오픈도어선교회를 비롯한 선교단체와 기독교 NGO의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기도제목 6. 북한의 기독교 박해 중단과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 내에서는 계속해서 기독교 박해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4월 평안남도 순천시 동암리 지하교회 적발사건이 발생하는 등 여러 건의 지하교회 적발 및 기독교 박해 사건이 보고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또한 김정욱(2013), 김국기(2014), 최춘길(2014) 선교사와 탈북민 출신 김원호(2016), 함진우(2016), 고현철(2016)씨, 그리고 조선족 사역자들이 여전히 북한에 억류되어 있습니다.

북한의 기독교 박해가 하루 속히 중단되고 지하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특별히 갇혀있는 성도들과 억류되어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29조(성록화물, 색정, 및 미신전파죄)
성록화물 또는 색정 및 미신을 설교한 영화나 록화물, 편집물, 도서, 사진, 그림 같은 것을 보았거나 보관한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성록화물 또는 색정 및 미신을 설교한 영화나 록화물, 편집물, 도서, 사진, 그림같은 것을 만들었거나 류입, 류포한 경우에는 무기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많은 량의 성록화물 또는 색정 및 미신을 설교한 영화나 록화물, 편집물, 도서, 사진, 그림같은 것을 만들었거나 류입, 류포하였거나 많은 사람에게 류포한 경우 또는 집단적으로 시정, 열람하도록 조직하였거나 조장한 경우에는 사형에 처한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의 종교활동 관련 처벌 규정>

북한 억류된 사람들

사진출처: VOA



김정욱 선교사
2013년 10월 억류

김국기 선교사
2014년 10월 억류

최춘길 선교사
2014년 12월 억류

고현철의 2인
탈북민 한국국적

장문석 집사
중국 조선족



기도제목 7. 강제 북송되는 탈북자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10월 9일 중국에 수감중이던 600여명의 탈북자들이 북한으로 강제북송 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북송된 이들이 당할 강도 높은 심문과 처벌을 고려할 때 이들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의 우려가 큼니다. 유엔 제3위원회는 올해도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면서 특별히 강제북송에 대한 우려의 메시지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강제 북송을 당한 이들 중에는 중국에서 신앙을 가지게 된 신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기독교 신앙 및 선교사 접촉 여부 등이 발각될 경우 정치범에 준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우리의 특별한 기도가 요청됩니다. 탈북민 강제 송환이 중단되고 붙잡혀있는 탈북자들에게 살 길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특별히 신앙을 가진 탈북자들의 안전을 위해 기도합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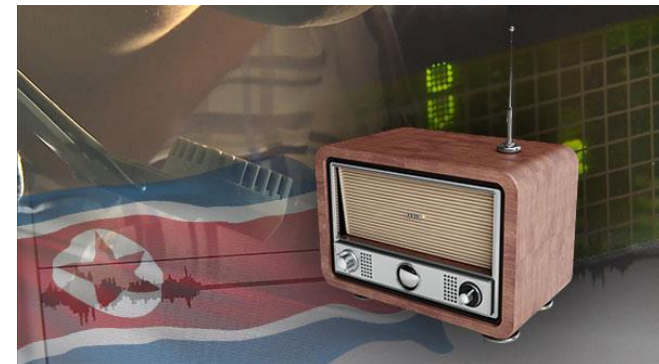




기도제목 8. 북녘을 향한 라디오 복음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픈도어선교회는 극동방송, 북방선교방송(TWR), 생명의 강 방송과의 협력을 통해 북한의 성도들을 격려하고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은 끝났지만 여전히 인적 왕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가운데 라디오 방송 사역은 막힌 국경을 넘어 북녘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방송 사역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지혜로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북녘의 청취자들이 안전하게 방송을 들으실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기상 악화나 북한의 방해전파 등으로 인한 음질 저하 및 청취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북녘의 주민과 성도들이 강화되고 있는 비사회주의· 반사회주의 단속을 잘 피해서 안전하게 방송을 들으실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주기도문

새번역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